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승천주일** :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 초록장터** : 오늘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익금은 전액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 선교회** : 오후 청과성서학당 이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 원로나들이** : 이번 주 목요일(21일) 원로 나들이가 있습니다. 안면도로 다녀옵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니 8:30까지 모여주세요.
- 결혼** : 정경준 씨와 장규수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오늘 오후 5시 DMC 타워웨딩홀 3층 라피네홀에서 있습니다.
- 주현철 씨와 강미선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 오후 12:10 구로 웨딩시티에서 있습니다.
- 신앙실천** :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낮선 꽃 앞에 잠시 멈추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행 2:1-21 / 시 104:24-34	2부	행 10:44-48
예배	롬 8:22-27 / 요 16:4b-15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이은미 장동훈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수정 유금주 신미라 최영혜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떡 대 접 : 조항범 오현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승천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울타리에 핀 함박꽃, 담장에 핀 장미, 길가에 핀 이팝나무꽃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주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주님만을 우러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과 전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그 흔들리는 터전을 붙잡아 주십시오.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나뉘고 찢긴 것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히2:2,3 인도자

♣ 교 독 문 74. 마태복음5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 성경봉독 I. 행1:15-17, 21-26 요일5:9-13 요17:6-19 ... 리 봄 선생
 II. 딤후 1:8-14 ... 이영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주 예수 넓은 사랑과 찬양대

말 씬 I. 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목사
 II. 말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영님 고숙이 광상준 최경미 권혁순 박해경 김근종 정옥영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정자현 김정훈 이진영
 김지현 김훈동 유경순 박숙미 박예림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서정순 송인선
 심상숙 오미숙 오숙현 오진훈 노순옥 유상진 유은정 은종인 이건우 이계숙
 이국노 김미화 이부곤 이상준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자영 임형욱
 장근성 박희순 장해정 전영린 전인섭 정영례 정현모 주경진 이윤정 차혜심
 노미향 최다미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광권희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현 진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무명

감사헌금

곽정자 구재원 김정진 김혜정 김태정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조항미 박옥식
 박정숙 박창운 허정윤 박철국 이숙자 오진훈 노순옥 유시윤 유병철 박숙영
 이범석 류정옥 이유일 김미희 임광호 김혜리 조항신 차혜심 노미향 최재욱
 이수정 홍성식 이유리 무명8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임승동 백혜숙 조항범 오현정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해 숙	박 성 희	박 영 희	오 유 경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최 경 미	오 유 경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김 명 순	곽 해 자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문 복 순	김 경 수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박 효 선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오 복 순	강 순 배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이 정 은	안 홍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노 성 희	안 홍 숙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김 희 우	송 양 진
다 메 섹	박 해 경	박 해 경	정 현 숙	최 수 화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발 한 뼤기

사람들은 참 아무 것도 모른다
 발 한 뼤기
 논 한 뼤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된다/
 발 한 뼤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 권정생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의 8주기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등	

찬양	450.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생명의 길이 눈앞에 환히 보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십시오.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 함께:	아멘. 자꾸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나만의 길을 가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선교회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종 권사	이진영 집사 문홍일 집사

5	영접위원	김정민 김종락 최재욱 박영신 이수정 이현순
	헌금위원	한완식 박미영

존 웨슬리의 생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엠퍼드Epworth 교구 목사 사무엘 웨슬리와 아내 수산나의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믿음이 신실했다. 집안에 가정학교를 만들어 열아홉 명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며 교수과목과 교육방침도 결정했다. 자녀교육의 제일의 목표를 규칙생활로 정해 아이들의 방종을 제재함으로써 착실한 종교교육을 시켰으며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개별 상담과 기도도 해주었다. 존 웨슬리가 위대한 종교지도자가 된 것은 이런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1707년 2월 7일, 집을 삼킬 듯한 불길에 목사관을 휩쓸었다. 이때 존 웨슬리는 2층에 있다가 이웃 농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이 위험한 사건을 겪은 웨슬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고 그의 80여년의 생애동안 화재와 구원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1725년 22세 때 그는 생애에 큰 전환기를 맞게 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한 웨슬리는 마침내 성직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웨슬리가 사도직을 걷기로 작정하는데 큰 영향을 받은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이다. 웨슬리는 2년 3개월 동안 부친 교구에 봉직한 후 1729년 옥스퍼드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한편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포드 그리스도교회 대학에 입학한 것은 1726년 그의 나이 20세가 채 되지 않아서였다. 그는 남달리 영리하고 비범한 학생이었고 형이 오기 전부터 교내에서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종교모임을 가졌다. 서로 뜻을 같이하는 그의 동지들과 함께 매일 매일의 학과 일정표를 만들고 종교적 의무를 지키며 침식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등 신앙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썼다. 그들은 이러한 규칙 생활로 동창

학우로부터 ‘규칙장이들’(method-ists)라는 별명까지 듣게 되었다.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로 돌아온 후 즉시 동생이 조직한 단체(holy club)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모여 기도하고 회랍어 성경과 고전문학을 연구했다. 성경연구의 첫 열매는 구제운동이었다. 그들은 재소자를 방문하고 병자위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웨슬리는 90파운드 수입 중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한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웨슬리는 그의 끝없이 타오르는 종교적 정열로 완고한 영국교회의 안일주의와 의식에 치중한 생활을 박차고 믿음의 요람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북아메리카로 전도여행을 떠난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 웨슬리는 중생의 기쁨을 체험한다. 이날 그는 런던시 울더스게이트가의 성경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한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한 웨슬리는 그 시대에서 가장 분주하고 많은 일을 했다.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을 순회하며 전도집회를 열었으며 4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일생을 통해 선교여행 한 총 거리가 40만km 에 달했다. 1791년 3월 2일. 그의 작은 방에는 열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 침상위에 누운 웨슬리는 친지들에게 “평안히 계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88세였다. 그의 유해는 시티로드교회 뒤뜰에 안장되었다.

- 다음 주일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기념 277주년 주일입니다.